VOL.341

NOVEMBER 11

열린신문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말씀솔루션

하나님의 인사(人事)

성경에는 나이와 족속, 성별과 능력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그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며 두 타입의 사람을 제시합니다.

사울은 준수하며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합니다. 외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맞게 건장한 사람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인 주변 나라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고 국정도 잘 운영하며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평가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반면 다윗은 외형적으로 건장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을린 피부에, 눈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더라"로, '그을린 피부'는 목동으로 성실했던 다윗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눈이 아름답고'에서 눈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표현이며, '보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특별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는 그 결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두 사람이 공통으로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고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두 번씩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사울은 두 번 모두 변명하고, 다윗은 두 번 모두 회개했습니다. 죄질(罪質)에 있어서 사울의 실수는 절차상의 문제이고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반면, 다윗의 실수는 간음죄와 살인죄와 같은 큰 죄악이며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울보다,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큰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따르는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잠시의 성공은 경험할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시107:1~2)

들어가는 말

시편 107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온 감격을 가지고 쓴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을 많이 받고 고통이 많던 시대에 찬송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다고 해서 많이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 때에는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되고, 위기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

본문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고 예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소유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이고, 성령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바라시는 시각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유물이라도 망가져서 쓸 수 없게 되면 고치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내놓은 자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놓은 자식은 없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당신이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어버림이 없습니다.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의 찬양은 그 사람 내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쏟아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자신이 주님의 소유임과, 주님께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주를 향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고백을 쉽게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끔찍한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을까요? 그동안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이국 땅에서 죽어가는 조상들을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70년을 회상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깊이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생이 변하는 사람은 소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의 구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디자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도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계획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계획이 일치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이 절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인생에 거치는 돌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게 보인 적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주님께 승복된 인생인지, 내 속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한 불신앙에서 오는 불만족과 고통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것의 입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동시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이, 끊임없이 무한대로 베푸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중 별것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이 비싸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합니다. 비싸게 돈을 주고 산 것은 쓸모가 없어도 쉽사리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당

>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 해방받아 돌아온 이스라엘,
> 죄의 종에서
> 속죄함 받은 성도들의 모형
>
>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 소유된 백성
>
> 고난의 때에도
> 그 자리에 함께하시며
>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 하나님의 성품,
> 선하심과 인자하심
>
> 인생의 목적과 구도가
> 하나님의 그것과 일치될 때
> 경험할 수 있어

신을 찢으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하셨기에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회개할 때,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날들을 떠올리시지 않고 그 참회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면 나중에는 좋은 이야기라도 화가 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께 어떻게 살지를 묻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물어도 언제나 대답해 주십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주께 다시 참회하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양식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한 모금의 물과 같습니다.

고난의 상처와 치유

고난과 시련 속에서 70년을 보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운데에 있을 때는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때를 지나서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에 쌓였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받고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런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맺음말

주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나보다 비참한 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영광 가운데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리 많은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두운 밤길과 같은 세상 길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주요사역

1일(수) 기도세미나
4일(토) 태아부 예비맘 스쿨(4주)
5일(주일) 북한선교세미나
5일(주일) 신임제직대상자교육(3주)
10일(금) 수험생학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 (연합금요기도회 시)
12일(주일)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식
18일(토) 중직자기도회
19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성찬식
24일(금)-25일(토) 당회수련회
26일(주일) 장년교구총회

가을말씀사경회 취재

그러니 무너진 곳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눈물

사흘간의 사경회가(10.16.~10.18.) 시작되기 바로 전날, 열린교회에서는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되었다.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이 날- 여느 때라면 축제처럼 진행되었을 행사가 이날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마당을 걷는 모습, 조용히 시선을 피하며 먼 곳을 향하는 눈빛들은 마치 온 공동체가 베옷을 입은 듯하였다.

그렇게 온 교회는 무거움을 안고 다음 날 새벽, 사경회를 맞이하였다. 찬양이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급히 찾아오신 게 아닐까?' 생각했다. 어느 책에선가 접한 '자신(自身)이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집회에 빠질 수가 없었다'는 고백이 떠올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린교회 사경회에 찾아오셨고, 사흘 동안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말씀의 화관을 씌우시며 기쁨의 눈물을 허락하셨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열린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성도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해주었다.

말씀

김성진 목사님은 오래도록 준비하신 듯,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새벽과 저녁 모두 여섯 번에 걸쳐 선포하셨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했던 설교말씀을 여러 번 바꾸게 하시며, 그 모든 말씀을 인도하셨다고 한다.) 창세부터 보여주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웅장한 대하드라마처럼 우리를 압도하였다.

첫날 새벽에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자유를 꿈꾸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육체와 존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창조주를 고백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라는 것, 이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이 선포됐다.

저녁에는 창세기 3장 14~15절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망가진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목적에 부합한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길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왕'으로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역설을 본으로 보이셨다!

둘째 날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25절 말씀이다. 온갖 문제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사도바울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교회 역사에서 평안할 때는 없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늘 산적해 있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역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히심이다.

저녁에는 창세기 15장 12~18절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 문서에서 계약의 당사자 중 높은 쪽 당사자가 낮은 쪽의 계약 파기로 죽임당한 예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오직 창세기 15장에서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자처하신 것이고, 이 신실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은 다윗의 시대에 1차로 성취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다.

셋째 날 새벽에는 전도서 3장 1~11절 말씀으로, 허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 삶에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며 매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저녁에는 사무엘하 7장 11-16절 말씀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이다. 다윗왕의 자손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마 1:1)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러니 무너진 곳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사경회에 이어진 금요 연합기도회에서 김성진 목사님은 다시 한번 사경회 말씀을 요약하며 적용점을 제시해 주셨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첫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자유를 꿈꿨고 그 결과는 노예로의 전락이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너진 세상을 섬기는 자로 회복시키셨다! 이제 왕권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땅의 무너진 곳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무너진 곳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 그 교회

가을사경회 강단에서 자주 반복된 표현이 있다.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사람'- 창조목적에 합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담은 사람이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듯, 그렇게 하나님을 좇는 사람이다.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 임시공동의회

10월 15일(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관 3층 예배실에서 만 19세 이상 세례 및 입교 교인(정관 제7조 제6항에 근거)이 참석하는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동서울노회장 박성은 목사님을 대리당회장으로 모시고(총회헌법 정치 제15장 제2조에 근거) 열린 이번 공동의회에서 노회장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임을 증거하는 표가 '고난'이었으며 그것은 자신이 약해짐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설교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의 정신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자들이 직분자이며, 이런 직분자가 있는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회원 파악 절차에서 당일 오후 3시 40분 현재 재적인원 3,341명, 참석인원 1,245명으로 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기준 충족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헌법에 따라서 안건이 공고되었는데 처음 임시공동의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중간에 변동된 '원로목사 추대'에 대한 안건 상정 취소에 대한 참석자들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안건의 내용을 고사한 김남준 목사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안건인 새 담임목사 청빙의 건, 임직자(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선거의 건과 투표를 일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동의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교구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투표용지가 개표, 집계되는 시간 동안 교인들은 교회 마당에 마련된 푸드트럭에서 준비된 떡볶이와 차를 먹고 본관에서의 피아노 연주와 가야금과 찬양이 어우러진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6시 27분에 새 담임목사 청빙 투표는 총 1,206명 투표에 1,166명이 찬성하여 97%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동시에 임직자 선거에서도 모두 90% 이상의 지지표를 받아서 장로 3명(구융회, 박희준, 이동훈), 안수집사 13명(강병관, 강준구, 김동응, 남기웅, 성시권, 신준영, 양석주, 이승근, 전상연, 정원대, 최복진, 허신구, 홍석희), 시무권사 28명(고은하, 김경희, 김근화, 김영희, 김이숙, 김지영, 김혜정, 박보경, 박신영, 박은정, 변승옥, 빈명희, 서은주, 손순덕, 안경록, 안미자, 안연희, 양선희, 유주화, 이은경, 임영주, 장미화, 전미경, 최미선, 최인선, 최현혜, 한경근, 허영주), 명예권사 9명(김연옥, 김정민, 김정숙, 백문옥, 변경숙, 서경덕, 오지순, 유현수, 이광자)에 대해 피택되었음을 선언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피택자들은 이후 6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임직하게 됩니다.

새 담임목사로 청빙된 김성진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장로님들과 동역하면서 목숨 다해 교회를 섬기겠다고 소감을 피력하셨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금성철 장로)에서는 당선증을 전달함으로써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김성진 목사님에 대한 위임식은 이후 노회의 인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도빌드업 후기

고난도 축복이다

이하나 장년3교구
henna337@naver.com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면서 왜 복만 주시지 않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일까? 오랜 시간 동안의 질문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도,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 하실까 두려워 매주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육신에 이끌려 온 것이지 온 마음으로 교회 안에 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검색해보지도 않았는데 담임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일 년간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라는 심정으로 열린교회를 찾았고, 새신자 등록을 하고 바로 성장반에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은 오랜 기간 매여있던 직장을 휴직하고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의 대학원도 다니며 마음껏 저의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에도 더 신경 쓰고 싶었습니다. 이것들이 올해 저의 계획이자 소망이었고, 일말의 신앙적 양심으로,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 제목으로 겨우 상정해 놓았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앞에 들뜬 마음이었고 성장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장반을 시작하자마자 고난들이 도처에서 밀려왔습니다. 나의 소망의 순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단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눈물 흘리는 저에게 전도사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기도 시간을 가지라 권하셨고 저는 바로 그 주부터 매주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즈음, 마음이 편해지니 꾀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희미해졌고, 수요일 예배로 대신하거나, 핑계가 생기면 개인 기도의 시간을 제일 먼저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즈음 또다시 자녀로 인해 눈물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 광고 시간에 기도 빌드업에 대해 듣고, 다시 월요일 저의 첫 시간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뒷걸음질 치는 저를 다시 잡아당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다시금 절절하게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이들 등교 후에 바로 교회로 나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권면도 지시도 아니었으나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고난 중에도 평안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심이 느껴졌습니다.

때론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과 원망도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 일을 하며 견디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깊은 곳에서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고, 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힘듦과 부침을 막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시되 이겨낼 힘을 함께 주시며, 그 너머에 찬란한 영광과 기쁨을 예비해주심이 느껴지니, 오늘의 힘겨움이 승리를 향한 과정이고 축복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빌드업을 하는 동안 한 주 한 주 목사님의 설교와 교리반에서의 공부와 말씀이 그 주에 꼭 필요한 위로와 위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세심한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짓곤 하였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 그렇게나 두려웠던 그 말씀, '고난도 축복이다'가 저의 마음속 등불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께 성실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기도 빌드업은 종료되었지만, 저만의 기도 빌드업은 계속됩니다.

기도빌드업 후기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남기웅 장년2교구
giwoong3@naver.com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등록하고 시작된 기도 빌드업이 벌써 예정된 기간(7.9.~10.14.)이 끝났다. 기도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제공한 포스트잇 기념품을 구역 식구들과 나누던 장면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열린교회 카카오톡 채널에서 매일 아침 6시에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뜨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받았다. 근무처의 근무 형태가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조용히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작정한 기도 시간이 회사 근무이면 아침에 퇴근하면서 또는 오후에 교회로 나와 정한 시간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예배당 1층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아침이든지 오후나 저녁이든지 교회 지체들이 언제나 한쪽에서 기도하고 계셔서 좋았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이번 기간에 가장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였던 말씀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었다.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해오고 있었지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지워지질 않았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텐데...

가정 안에서 따뜻하게 섬겨주는 남편, 아빠라고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 뜨겁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드럽게 아이들을 타이르지 못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내 마음의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싶었다.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은혜를 간구하며 변화되길 기도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였다. 30여 분의 기도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정화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감사했다.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 등을 할 때 마음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는 듯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족들에게 읽혀졌는지 아이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대화를 나눌 때 조금은 마음을 더 여는 것 같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구역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지체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해주실 것에 기대가 되었다. 이번 특별 작정 기간에 같이 진행된 구역공과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읽고 지체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의 믿음과 생활에 대해 점검과 반성을 하고 기도 시간에 더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게 되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고 싶었다. 기도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느낌,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느낌을 통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의미의 일부를 조금 맛본 것 같다.

교회적으로 함께한 기도 빌드업은 끝이 났다. 그러나 아직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기다리며 채워야 할 시간은 나에게 남아있다. 아이들의 회심, 부모님과 동생의 구원,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 날을 위해 나만의 기도 빌드업을 지속해 나가야겠다. 기도 시간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교육 일정

신임제직교육
- 일시: 11월 5, 12, 19일(주일) 오후 5시
- 대상: 2024년 신임제직 대상자로 지정된 지체 (게시판 참조)
- 신청: 교회 홈페이지 및 본관 1, 3층 로비 신청함
- 면담: 12월 2일(토) 오후 4시

8기 상담교실
- 주제: 아빠 Level Up 1
- 대상: 초등4~고3 자녀를 둔 아버지
- 일시: 10월 29일(주일)~11월 19일(주일) 오후 6시~8시 30분
- 신청 및 문의: 도홍희 집사

북한선교세미나
- 일시: 11월 5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개별 안내
- 신청 및 문의: 오기용 집사

태아부 예비맘스쿨
- 일시: 11월 4일(토)~25일(토)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장소: 교육실3(별관 2층)
- 대상: 출산 및 임신을 준비하는 자매
- 문의: 김지연 집사

영아부 예비학부모설명회
- 일시: 11월 5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주제: "우리 아기 첫 예배 어떻게 준비 할까요?"
- 장소: 영아부실(별관 1층)
- 대상: 3세 이하 영아부 미등록 가정
- 문의: 김진하 전도사

세빛교실(영아부) 후기

엄마 바라기에서 하나님 바라기로

송수진 사모구역
vgongju@gmail.com

세빛교실이 시작될 무렵 루디는 두 돌쯤 되고 언니가 된 지는 백일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님이 둘째를 봐주시고 첫째는 영아부 세빛교실 프로그램에 분리하여 참여해서 온전히 혼자 주님 앞에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유아부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이 함께 모여 전도사님들의 인도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세빛교실을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빛교실 직전까지 저와 루디는 부정적인 교감이 많았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극진히 루디에게 집중하며 온 시간과 정성을 다해 주었지만, 밤낮으로 "엄마, 안아줘"하며 몇 달을 울며 엄마만 찾아 손목과 허리통증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시작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였지'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빛교실은 영유아부 자녀들과 부모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배우고 부모는 성품 대화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자녀와의 대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성품 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갖는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좋은 성품을 기르는 대화 습관이 필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 4주 동안 루디에게도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룻, 사르밧 여인,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종이라는 성품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매일 엄마 아빠와 순종에 관련된 간단한 과제를 하는 해피 타임 과제가 있었는데 온 가족이 "힘들 때도 순종해요"와 같은 구호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와 같은 순종에 관한 암송 등을 통해 몸짓과 말로 반복적으로 활동하며 한 달간 순종에 대해 묵상을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자녀에게 순종을 알려주려면 내가 먼저 남편과 어머님께 힘들 때도 기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빛교실 중심 찬양 가사인 "싫어 싫어 못해 못해 하고 싶지 않아도 힘을 내 마음을 바꿔봐 예스 예스 순종 순종할래요"가 생각나서 삶 속에서 순종을 실천하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매일 순종에 대한 말씀, 찬양, 기도를 하며 루디가 순종에 대한 성품을 하나씩 배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빛교실 마지막 날에는 순종에 관한 찬양들을 어느새 익혔는지 몸짓과 말로 순종을 표현하는 루디가 사랑스러워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루디가 언제 울까 노심초사 눈치를 볼 정도였는데 세빛교실만 다녀오면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계속 예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빛교실 하는 내내 루디의 울음소리가 줄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 가고 싶다고 표현하며 엄마에게 매달려 있던 엄마바라기 루디가 하나님 바라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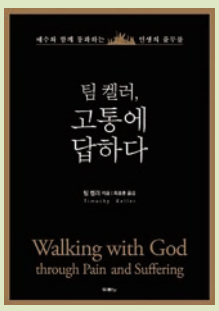
세빛교실 시작하며 루디가 처음으로 입으로 소리 내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아픈 루디가 "하나님 루디 아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시간이 루디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영아부 전도사님과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영아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바라기로 자라나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일들을 기대합니다.

추천도서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팀 켈러(최종훈 역)/두란노



고통과 괴로움이 일상이 된 시대다. 매일같이 미디어를 통해 참담한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들려온다. 살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고난을 맞닥뜨리는데,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신앙을 등지고 누군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팀 켈러는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기준선에 바로 '고난'이 있음을 발견했다... 현대인들은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악에 대한 두려움을 애써 묻어 두고, 불안한 마음을 온갖 것들로 바삐 채우며 달려간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멈춰 서서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이 인생의 풀무불을 어떻게 바라보고, 맞이하고, 또 통과할 것인가? 어둔 세상에서 절망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며, 결국 진정한 도움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재물,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책의 논지다.(두란노)

새가족

▶▶ 장년

김상현(80) 김혜경(71)
최민혜(83) 정홍(76)
강태옥(35) 박유림(73)
김은미(62) 권에스더((74)
김다운(97) 박시화(81)
김정은(80) 송인종(64)
김상철(39)

▶▶ 청년

이채원(96)
이건우(96)
황선호(03)
김종민(88)
이수정(03)
황연수(96)

세빛교실(유아부) 후기

신앙과 성품, 두 마리 토끼 잡기

정은향 장년3교구
wert221@naver.com

아이와 저는 열린교회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적응할 무렵, 세빛교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처음 교회에 다니는 거라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다 참여했으면 하는 단순한 마음에 신청했고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는 잘 모른 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아이와 저에게 도움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유아기에 꼭 필요한 순종과 절제에 관한 말씀을 학습하는 시간이었고 저는 성품 교육과 신앙교육에 대해 학습하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항상 숙제였던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이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 나이인 5살보다 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부모님 따라 매주 교회에 다녔지만, 그때의 저는 신앙심이 그리 깊지 않았고 결국 점차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나는 교회에 꾸준히 다녔지만, 왜 신앙심이 깊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니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해가 안 되니 어려워 알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처음 교회에 다닐 때부터 교회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스며드는 그런 경건 생활을 경험시켜주고 싶었고 세빛교실은 그런 경건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저와 아이에게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정 연계 활동 과제를 통해 집에서도 아이와 성경 말씀으로 절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공부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절제 절제해요'라는 찬양을 배웠는데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이 가사인 이 노래가 아이 마음에 제법 와닿았는지 가사를 다 외워 노래를 부르고 자기 전에도 항상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갈수록 육아 고민이 깊어져만 가는데 세빛교실을 통해 아이의 절제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품 교육도 받을 수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각각의 신앙교육법과 성품 대화법을 이번 교육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알려주신 신앙교육과 성품 대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해보니 '왜 진작 몰랐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노력하여 신앙과 성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에는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에게 고마운 것, 미안한 것, 바라는 것,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바탕으로 편지를 쓴 걸 같이 나누었는데 처음엔 뭐라고 써야 할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니 제 진심이 뭔지 알 수 있었고 다른 성도님들의 진심도 알 수 있게 되어 정말 은혜로웠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빛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열린교회와 4주 동안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힘써주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편지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교회

아짠, 기도해주세요

'아짠(목사님), 저 이번 주에 설교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 태국에 들어간 니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그리웠던지 눈물을 흘립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열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열린열방선교교회로 옮겨와 6년을 리더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태국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태국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갑자기 환경은 바뀌었고, 주위에 신앙공동체를 찾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 안에서 관계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교회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 설교를 부탁 받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기도도 부탁할 겸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국 전역에 흩어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뿌렸던 그 씨가 맨 처음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태국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태국에 흩어진 지체

열린열방선교교회에서 4년간 함께 섬겼던 아짠 칫 가정을 2021년에 태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짠 칫 가정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흩어졌던 지체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열린교회에 있을 때부터 태국인 지체들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간 지체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방문하는 아웃리치를 매년 해왔습니다. 매번 수천 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여 지체들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방문할 때마다 힘을 얻고 고마워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태국에 귀국한 지체들을 모아 수련회를 했습니다. 처음 수련회를 했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진 못했지만 참석한 30여 명의 지체가 과거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지체들이 다음에는 가족들도 함께 오겠다고 하여 올해 12월에 두 번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에 흩어진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사연을 안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흩어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문화 사회 가운데 열린열방선교교회

이렇게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열린열방선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2017년 한국인, 태국인, 스리랑카인들이 함께 반월지역에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했던 지체들 중 떠나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시 태국, 스리랑카로 돌아간 지체들도 있었고,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 출국한 지체들도 있었고, 또 마음이 어려워서 떠나간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 왔던 지체들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지체들로 채워졌습니다.

며칠 전 한국인, 태국인, 스리랑카인들이 모여 한 집사님 댁에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날 모임 이후에 태국인 나위 형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교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지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도 우연이 없으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형제자매들 사랑합니다." 그 형제는 오랫동안 신앙공동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와 연결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우연이 아니고, 자신이 그리던 그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었던 것이지요.

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대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경제인구 감소를 외국인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듣습니다. 지금보다 외국인이 이 땅에 더 많아지겠지요. 또 그들 가운데는 한국에 가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다문화 사회를 맞게 될 것이며, 많은 변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 나라 사람이 한 교회에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7년을 돌아보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급변할 한국 사회 가운데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찾아온 나그네들이 단지 외부자가 아니라 주체자로 서고, 그런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뤄내는 것, 그 소망으로 오늘도 열린열방선교교회를 섬겨갑니다.

기도제목

1. 외국인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인 화성으로 교회를 옮기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소서.
2. 태국에 흩어진 지체들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각 지역에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외국인 리더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자들로 자라게 하소서.
4. 한국인 성도들과 외국인 성도들 사이에 더 깊은 교제가 이뤄지게 하시며,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정진학·손원향(찬영, 찬유, 찬율, 찬성) 올림

* 정진학 목사님은 GMP 소속 정회원 선교사로서 태국에서 2003년 부터 약 4년간 평신도 선교사로 섬겼고, 2008년부터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온 지체들과 함께 열린교회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다가 2017년 3월에 안산에 열린열방선교교회를 설립하여 예배처소를 옮겼습니다. 열린열방선교교회는 열린신문 8면에서 '국내디아스포라'로 소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편집부)

새공과 소개 /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좋은 사람'으로 살아내기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이후 공과로 예정되어 있었던 <시편 23편 강해>는 교회의 사정으로 취소되었고, 대신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로 공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 담임목사로 청빙되신 김성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한 가을말씀사경회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설교 시리즈는 사경회 기간 새벽과 저녁에 선포된 말씀과 그 주 연합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말씀까지 총 여덟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이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자요 회복자로 오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마치 성장반에서 배웠던 복음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공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한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좋은(토브) 사람이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야 할 능력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공과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참 섬김을 회복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참 화평을 이루는 열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목양센터)

가을말씀사경회 후기

In His Time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부러웠다. 나처럼 고통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루하루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내가 할 일들이 있으니까 사는 삶이었다.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딱 나였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으나 나의 마음은 항상 번민과 고뇌,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자주 내 마음을 지배했다.

단순한 이런 생각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원망과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있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였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세상을 끝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다. 날마다 죄를 짓기만 하는 나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만 같았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없었다.

여느 때처럼 사경회에 참석했다. 사경회 참석하기 직전에도 마음은 괴로웠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감사하게도 말씀에 집중이 잘 되었다. 또한 이전에 희미하게 알고 있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왜 복음인지 알게 되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완전히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끝내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실히 이루어 가셨고 결국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듣고 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다. 새로웠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다.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분명히 전에도 들었을 텐데. 꼭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았다. 충격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서였구나. 내가 의미 없이 살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아름다운 한 날이구나. 나의 지금 이 호흡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한 호흡이구나. 새로웠다. 새벽에 기도할 때 습관이 생겼다. 호흡을 깊게 들이쉰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은 내가 선물로 주신 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게 되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또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했다. 나의 모습이었다. 정확히 일치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즉시 나의 생각을 더했다. 은혜가 소멸되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여 불평했다. 은혜는 바로 소멸된다.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그 하와의 그 불순종에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

나도 그랬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깨달아졌다. 이것은 진짜 은혜이다. 선악과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막히고 힘들었었기 때문이다. 선악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의 삶에서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 그대로 회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 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와 주변의 모든 이웃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졌다. 이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흔해 빠지고 식상해 보이지만 진리인 이 말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나의 삶의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나의 게으름과 나를 주인 삼은 삶이 있었음을 본다. 그중에 최고는 자기사랑이었다. 몸서리치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사랑은 아주 강력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싫은 상황에 놓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즉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자기사랑의 노예가 되어 온갖 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나의 모습을 회개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마귀의 종인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셨다. 그 삶이 몸서리치게 싫어졌다. 더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

하나님. 왜 그동안 저의 이 영혼의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냐고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경회가 하나님의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옳습니다. 그때는 너무도 정확하고 아름답습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오랜 기간 있었으나 그 기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이고 이제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때이므로 그것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이래로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은 생을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날려버린 날들의 몇 배나 주님 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본인의 요청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

그가 건강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알까요?

글 · 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몸집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의 몸이 건강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힘을 써야 할 때
그 몸이 근육인지 부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의 영혼이 건강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섬김이 필요할 때
그 영혼이 살아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만남 품은 열린교인

지금은 그저 이름 없는 들꽃이 되고 싶은 낮은 자의 고백

김초원 장년1교구
chowon0526@naver.com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20대 초반 일본 유학을 앞두고 참석하게 된 여름수련회에서 성령체험을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설렘과 큰 포부를 가지고 일본 유학을 준비했고, 결국 또래보다 2년 늦게 도쿄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냐는 주변인들의 칭찬에 제가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살며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인생은 내 힘과 노력대로 그저 열심히 하면 다 보상받는구나.' 하며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학교도 늦게 들어왔으니, 이제 빨리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저의 커리어를 쌓고 싶어요.' 하며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멈추지 않는 페달을 밟으며 하루하루 조급하게 살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일본 유학 생활 기간은 하나님 없어도 노력하면 다 잘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짓말과 교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겨울방학에는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까지 완벽히 하면 국제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며 필리핀으로 영어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서 짐을 챙기고 3일 안에 일본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필리핀 선생님께서 지금 일본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피해가 크니 조심히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진은 2011년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학업 계획은 쓰나미로 다 틀어지게 되었고 방사능과 여진에 대한 가족들의 염려와 걱정 속에 결국 저의 일본 유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는 그 상황에 대한 아쉬움보다 지진과 쓰나미를 겪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지내다가 쓰나미를 맞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저는 교회 중심이 아닌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쓰나미로부터 지켜 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진정으로 제 삶을 온전히 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 종료 후, 영어를 배우고 싶어 떠난 곳이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 중심이 아닌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캐나다 한인교회의 어려움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가대, 설거지 봉사, 새신자 환영회, 찬양팀까지 비어 있는 자리가 보이면 무조건 봉사했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섬김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기에 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홈스테이 생활과 칼리지 학업을 병행하며, 처음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시 15분에 새벽기도 참석을 위해 토론토 땅에서 목사님 픽업을 기다리며 드렸던 찬양과 눈물의 기도로 은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가족도 없는 캐나다에서 저를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드렸던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제가 초기 캐나다 생활을 정착하고 지탱해 주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지만, 이민 교회의 사랑 없음에 상처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봉사 중심의 육신적인 신앙생활과 무심한 사람들 속에서 몸과 마음이 혹사되었고, 결국 교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2년 반 만에 칼리지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라 더욱 컸기에 한국에 돌아와서 5년 동안 거의 사람도 안 만나고 인생의 패배자처럼 지냈습니다. 인생에서 큰 우울과 좌절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피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분노의 쓴 뿌리로 인해 20대 후반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엔 주님을 원망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결혼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빛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무궁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열린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뼈대를 차근차근 세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온 가족 여름수련회 때 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제 얘기 같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욥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욥처럼 이유불문한 고통이 내 삶을 에워싸도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 욥의 고백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열린교회에서 잘 훈련받아 다시 한번 항해를 위한 돛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저는 저를 통해 주님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비록 이름 없는 들꽃이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영원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댁 친지분들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그전에 제가 예배 속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 변화돼야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남준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효
부목사	김성구 박재헌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김수민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진산 정명원 최영광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김민성 김진하
교육전도사	이두호 이해선 조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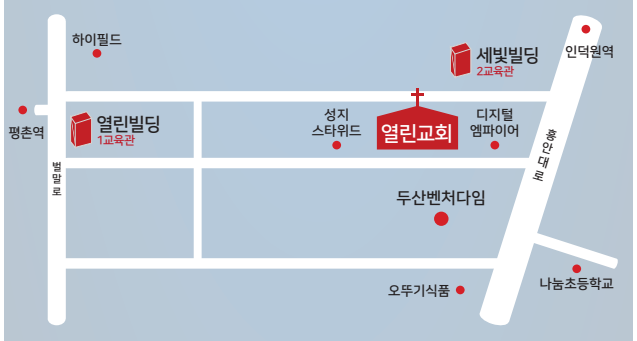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A국: 4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